

# 하상주보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4년 7월 21일  
제2010호

주임 신부: 김태진 베네딕토

보좌신부: 이태섭 요한사도

사도 회장: 강세원 바오로

연령 회장: 홍의훈 요셉 (703 966 8206)

사무실: 703 968 3010

팩스: 703 968 3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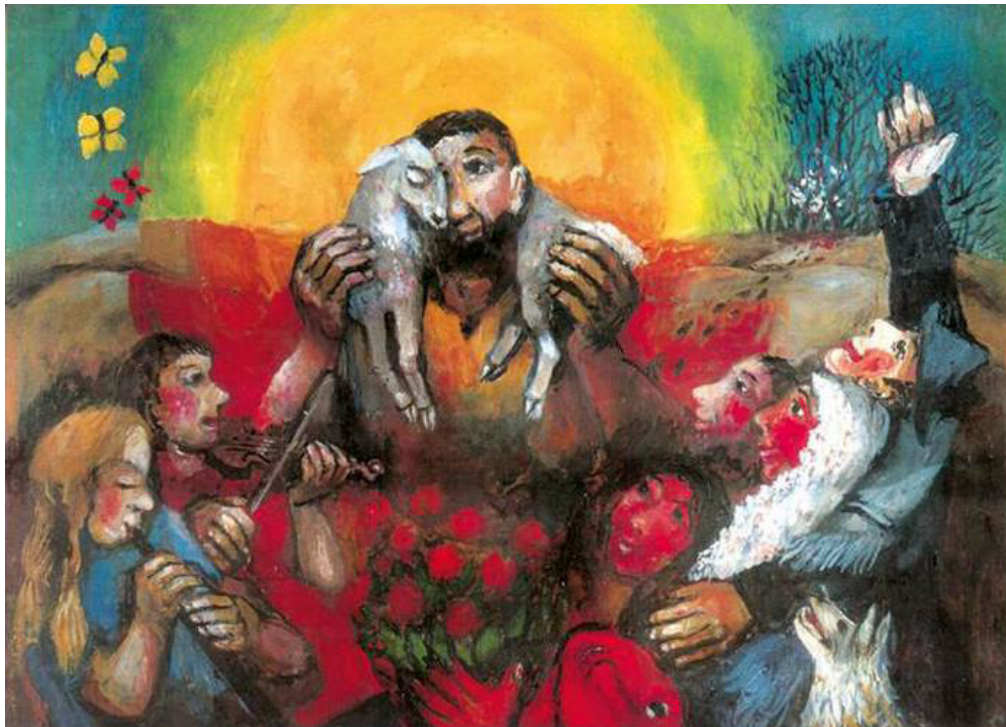
주소: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이메일: sthasang@gmail.com

기도로 힘을 얻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리라.”(묵시 21,5)

“예수님께서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엸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 (마르 6,34)



〈착한 목자〉, 지거 괴더

## 연중 제16주일 (나해)

**제 1 독 서** 예레 23,1-6 | 나는 살아남은 양들을 다시 모아들여 그들을 돌보아 줄 목자들을 세워 주리라.

**화 답 송** 시편 23(22) |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제 2 독 서** 에페 2,13-18 | 유대인과 이민족을 하나로 만드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복 음** 마르 6,30-34 | 그들은 목자 없는 양들 같았다.

## 그들은 목자 없는 양들 같았다.

그때에 <sup>30</sup>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 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다 보고하였다.  
<sup>31</sup>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따로 외딴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  
<sup>32</sup>그래서 그들은 따로 배를 타고 외딴곳으로 떠나갔다.  
<sup>33</sup>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모든 고을에서 나와 육로로 함께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다다랐다.  
<sup>34</sup>예수님께서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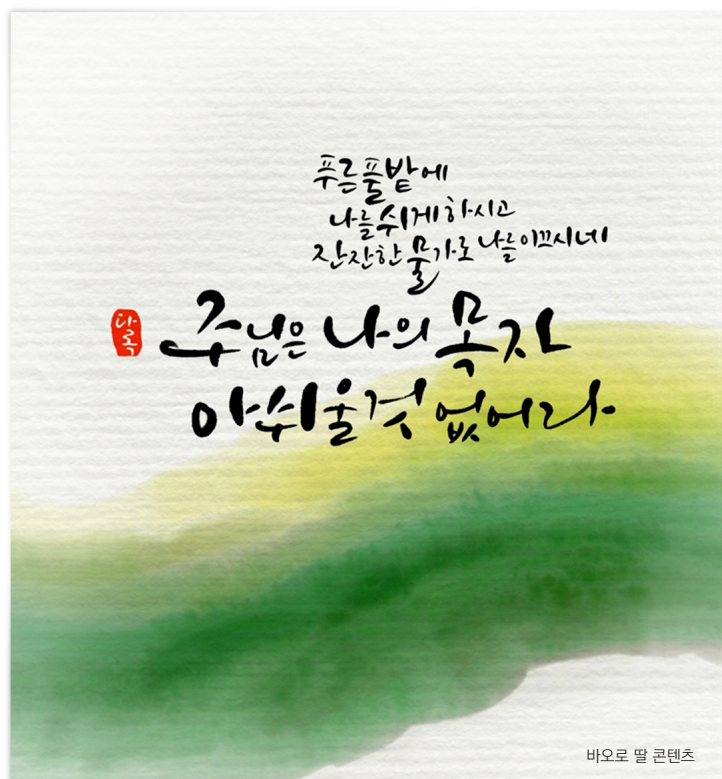
## 복음 묵상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목자 없는 양들 같은 이들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죄인들에게는 하느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악의 지배를 받는 이들에게는 하느님께서 그들도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것을,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에게는 그들이 얼마나 하느님에게서 빛나간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온 삶을 다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최고의 가르침은 십자가였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바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바라시는 하느님의 사랑에는 어떤 구분도 차별도 예외가 되는 사람도 없습니다. 제2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 신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몸으로 유대인과 이민족을 하나로 만드시고 이 둘을 가르는 장벽인 적개심을 허무셨습니다. ... 십자가를 통하여 양쪽을 한 몸 안에서 하느님과 화해시키시어, 그 적개심을 당신 안에서 없애셨습니다.”

착한 목자인 예수님께서 당신 목숨을 바치시면서까지 가르쳐 주신 우리를 향한 하느님 사랑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잃어버리는 양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라는 제1 독서의 말씀처럼,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어도, 여러분이 잠시 믿음을 잃어버리더라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신비는 여전히 여러분에게 모두 유효합니다.

특히 오늘 하루는 부족한 저와, 교회의 모든 사제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제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신비를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선포하는 목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입을 열면 말씀이 주어져 복음의 신비를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도 간구해 주십시오.”(에페 6,19)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들 가운데 잃어버리는 양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아멘. (김재덕 베드로 신부)





## 2024 WorkCamp June 22 - 28, 2024

성 정 바오로 성당 CYO 학생 20명은 6월 22일(토)부터 28일(금)까지 진행된 알링턴 교구 워크캠프(WorkCamp)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워크캠프도 신자분들의 많은 기도와 협조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권용우 스테파노(Yong Woo Stephano Kwon)



Paul Hwang | graduated

WorkCamp was a completely new experience for me. I didn't know if I would enjoy it knowing that everyday you had to work eight hours in the heat, shower in the cold, and eat the same breakfast and lunch. But thinking back, the eight hours in the heat was really just eight hours enjoyed with friends who shared the same faith as me as we powerwashed a roof, repaired a deck, and rebuilt staircases and handrails.

Jinseo Kim | rising 12<sup>th</sup> grade

WorkCamp changed my life. I entered as someone not too concerned with the faith, as someone who thought "oh I'll deal with my faith later" or "oh this is more important than God right now".

All of that changed at WorkCamp. Going to mass every day, doing program and being able to just experience God's love was amazing. For the first time, at Adoration and during program, I truly felt God's will and His presence. The hard work and struggle also helped me understand God's own grace and incredible charity, and Jesus' sacrifice on the cross.

All in all, WorkCamp changed my life spiritually and gave me a great sense of hope and humility that Jesus died not for men, but for each man.



The cold showers were fun since it was the first time I'd see my St. Paul Chung friends after working. Eating the same breakfast and lunch was overshadowed by the engaging crew devotionals. **All these seemingly bad parts of WorkCamp turned out to be some of the best parts.** In addition, daily mass, dinner time, program, and lights out were all with the St. Paul Chung people.

I hadn't felt fellowship as strong as this ever since Turkey Bowl ended. Not only did we have fun as a parish, but we also grew in faith together.

Every night, with the boys, we would pray a rosary and chaplet of divine mercy with meaningful intentions. And even with workcamp ending almost 3 weeks ago, we still pray together every night. Lastly, adoration was truly amazing at WorkCamp. I have never done an adoration as strong as this, seeing a thousand people kneeling together.

If I wasn't a graduating senior, I would, no doubt, come back every year and maybe even volunteer. I'm glad that I chose to go to WorkCamp. I have no regrets.

Ellena Suh | rising 10<sup>th</sup> grade

My name is Ellena Suh and I am a rising sophomore at Langley High School.

I experienced my first year of WorkCamp at Frederick County Middle School and “**transformative**” is one of many words I can use to describe my experience. Initially, WorkCamp was less than appealing as I was expected to work many long hours in the sun. However, the unexpected bonds I formed and the accomplishments I made with my crew completely altered my perspective. Although repairing windows and tackling gutters was a drag, I found unexpected joy in doing these with my crew.

The evenings spent eating dinner and worshipping God with my parish felt incredibly rewarding after a long day of work. Moreover, the night dedicated to confession and adoration gave me an incredibly spiritual experience I will never forget.

WorkCamp deepened my faith, cultivated a more intimate relationship with God, and brought me closer to my parish. While the physical labor was undeniably challenging, food was delicious, bedtime was never more exciting, and the feeling after serving my community draws me to look forward to my next year at WorkCamp.



2024년 알링톤 교구 주치 여름 성소 캠프



2024년 7월 여름 알링톤 교구 성소국에서 교구 본당들 소속 CYO 남학생 대상 여름 성소 캠프(Quo Vadis Summer Camp, July 7-11, 2024)가 열렸다. 본당에서는 4명의 CYO 남학생들이 참가하여 4박 5일 동안 사제/부제/신학생 및 수사/수녀들과 함께 미사와 기도, 특강 그리고 스포츠 활동 등을 같이하고 본인의 “성소”에 대해 더 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별히 본당 김태진 신부님과 이태석 요한 사도 신부님이 캠프 출발에 앞서 참가자들 모두에게 축복과 격려를 해 주셨고, 캠프 중에는 본당 이효빈 바오로 신학생도 참가자들과 만나 즐거운 시간을 함께 가졌다. (성소 후원회 기사 제공)





## 1 세계 선교를 위한 2차 헌금(7월 20, 21일)

- 알링턴 교구가 선정, 지원하는 모금
- 브라질 살바도르 두 번째 수도원 건립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빈민을 위한 살바도르 수도원은 빈민가 "알토 다 에스테란사"에서 선교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많은 적자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두 번째 수도원을 속히 열어서 새로운 성소자를 환영, 형성하고 빈민가인 "알토 다 에스테란사"의 빈곤층을 위해 장기적으로 선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와 도움을 청합니다. (호아 파울로 산티아고 신부)

- 온라인 기부 : <https://arlingtonmissions.org/mission/congregation-of-saint-john/>

## 2 하상회 월례 회의

- 일시 : 7월 21일(일) 오전 11:30 (B-3,4)

## 3 안나회 월례 회의

- 일시 : 7월 21일(일) 오전 11:30 (A-1,2,3,4)

## 4 꾸리아 월례 회의

- 일시 : 7월 21일(일) 오전 11시 (B-1,2)

## 5 연중 영화 상영

- 일시 : 7월 21일(일) 오후 3시
- 영화 제목 : 천국에 다녀온 소년
- 조용한 시골 마을의 성실한 가장 토드. 그의 네 살배기 아들 콜튼이 위급한 상태에서 가족과 주민들의 기도로 기적적으로 회복된다. 이후 콜튼은 천국에 다녀왔다고 말하며 그 경험을 상세히 이야기해 마을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린다. 과연 코튼의 이야기는 진짜일까?

## 6 울뜨레아

- 7월, 8월에는 월례 회합이 없습니다.

## 7 7월 28일 모임

- 루카회, 요한회 모임이 없습니다.

## 8 주일학교 CYO Summer Camp

- 일시 : 7월 25일(목) - 7월 28일(일)까지
- 장소 : Prince William Park
- 고등부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캠프를 통해 학생들이 하느님을 찬미하며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캠프 지도를 맡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9 주일학교 CCD Summer Camp

- 일시 : 8월 9일(금) 오후 3시 - 8시, 8월 10일(토) 오전 10시 - 오후 6시
- 장소 : 본당
- 대상 : Rising 1<sup>st</sup> grade - 8<sup>th</sup> grade
- 등록 : 본당 입구, 주일 2시 미사 후
- 문의 : 임형준 이레네오 (703) 624-8196
- 늦게 등록하면 원하는 티셔츠 사이즈를 못 받을 수도 있으니 서둘러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0 2024 - 2025년 CCD 조기 등록

- 대상 : 유치부(K) - 8<sup>th</sup> grade
- Early Bird Discount : 한 자녀 \$90 / 두 자녀 \$160 세 자녀 이상 \$180
- 등록 : Google Form / 접수양식(하상관 교무실), 8월 4일까지 (8월 5일 - 9월 15일은 할인 적용 안됨)
- 9월 15일(일) 이후 등록은 안 받습니다.
- 문의 : 임형준 이레네오 (703) 624-8196

## 11 2024 - 2025년 CYO 조기 등록

- 대상 : 9학년 - 12학년
- Early Bird Discount : 한 자녀 \$90 / 두 자녀 \$160 세 자녀 이상 \$180
- 등록 문의 : 구아름 데레사 (703) 599-8869

## 12 하상 한국학교 종강식

- 일시 : 7월 26일(금) 오후 1:30 (체육관)
- 학생들을 위해 수고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13 하상 한국학교 2024-2025년 등록안내

- 대상 : 유치부 - 12학년 재학중인 학생(K - 12<sup>th</sup>)
- 학사 일정 : 2024년 9월 7일 - 2025년 5월 17일 (매주 토요일 오전 9:30 - 오후 1시)
- 등록 : 7월 22일, 23일/구글폼으로 등록, 하상관 체육관 (오전 10시 - 오후 12시)
- 학비 : 등록비 \$50불 포함  
첫째 \$590 / 둘째 \$570 / 셋째 \$550
- 문의 : [hasangkoreanschoolva@gmail.com](mailto:hasangkoreanschoolva@gmail.com)
- 본당 홈페이지 > 하상 문화원 > 하상 한국학교 > 2024-25 정규학기 등록(구글폼 및 등록 원서 다운로드)

## 레지오 침묵피정

- 레지오 단원들을 위한 침묵 피정
- 7월 26일(금) 부터 28일(일)까지 D.C. 가톨릭대학에서
- 천영수 마론 신부(한국 외방 선교회)의 지도로 열립니다.
- 단원들과 협조 단원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 꼬미시움 단장 배성훈 디모테오

## 교중미사 예물봉헌

07/21 이번 주 센터빌 1구역

07/28 다음 주 센터빌 2구역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4년 7월 14일 (연중 제15주일)

봉헌금	\$ 8,679.00
교무금	\$ 4,850.00
교무금(신용카드)	\$ 2,850.00
감사 헌금	\$ 330.00
온라인 봉헌	\$ 610.00
합계	\$ 17,319.00

## 공지

## 주일미사 참례에 대한 의무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신자들은 주일미사 참례 의무가 있습니다. 주일미사 참례는 어느 성당이든, 어떤 미사든 상관없습니다. 주일미사 참례 의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고해성사'를 보셔야 합니다.

## Find a Mass near me



여행지에서 가장 가까운 성당과 미사 시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www.masstimes.org](http://www.masstimes.org)

휴가 중에도 주일을 지키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버지니아 성 정바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1030  
Fios Ch. 30

2024년 7월 25일(목) 오후 5:00 - 6:00  
2024년 7월 26일(금) 저녁 8:00 - 9:00  
2024년 7월 28일(일) 오전 6:00 - 7:00

- 주일 강론
- 교회미사 2천년 : [제 4강]  
십자군 운동과 바이킹, 노르만 시대



##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8:00 AM</li> <li>10:00 AM(교중미사)</li> <li>2:00 PM(학생미사)</li> <li>5:00 PM(청년미사)</li> </ul>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7:30 PM		
월, 목, 토	화, 금	수	
6:00 AM	7:30 PM	11:00 AM	